

제11회 2019 경주동학문화제 안내

□ 행사 개요

1. 행사명 : 제11회 2019 경주동학문화제(이하 경동제)
2. 일시 : 2019년(포덕160년) 10월 19일(토요일) 12:00~16:00
3. 장소 : 수운 최제우 선생 생가(경북 경주시 현곡면 가정길 33-29)
4. 주최 : 천도교중앙총부
5. 주관 : 동학민족통일회
6. 후원 : 경상북도, 경주시
7. 참여대상 : 경주시민, 일반시민, 관광객, 지역단위 주요인사, 천도교 교인

□ 행사 일정

<10월 19일 기념식 및 기념공연>

구분	시간	순서	내용	비고
1부	12:00~13:20	점심	점심 식사 - 현장 카페테리아	밥, 국, 6찬
	12:50~13:20	여는 공연	경주문화원 부설 “서라벌풍물단” 세로토닌 예술단 타악기 공연	길놀이, 타악연주
	13:20~13:30	개식	개식 선언 및 심고 : 박인준 교화관장 청수 봉전 : 이명자 용담교구 교화부장 경전 봉독 : 최상락 용담수도원장	사회 : 박인준 교화관장
	13:30~13:40	내빈소개	주요 내빈 및 천도교 교역자 소개	
	13:40~14:00	기념사 환영사 축사	송범두 교령, 경주시장 문화체육부장관, 경상북도지사, 경북도의회의장, 경주시장, 경주시의회의장, 김석기 국회의원, 불국사 주지스님, 경주문화원장	
	14:00~14:10	폐식	폐식 심고 및 2부 안내 / 공연 준비	
2부	14:10~16:00	기념공연	<만고 풍상 겪은 손> 연출: 권호성	(주)쇼앤라이프
	16:00~	행사 종료	귀가 심고	사회자

기념공연 <만고풍상 겪은 손>

올해 경주동학문화축제가 열리는 ‘수운 최제우 선생 생가’는 얼마 전까지 유허비만 남아있던 것을 경주시가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복원을 추진하여 2014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이런 뜻 깊은 장소에서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 최제우 선생의 일생을 해설과 춤, 노래를 결합한 뮤지컬로 빚어내어, 자랑스러운 경주시민은 물론 일반시민과 더불어 동학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축제에서 탈피하여, 2천년 영성과 문화의 도시 경주에 걸맞은, 역사와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축제로 재도약하기 위해 펼치는 <만고풍상 겪은 손>은 익어가는 가을날의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60여 명의 배우 및 연주자, 무용수, 소리꾼들이 함께하는 이 기념공연은, 뮤지컬 『들풀』, 『윤동주 달을 쏘다』와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과 『숙영낭자전을 읽다』을 연출한 서울예술단 권호성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습니다. 관록 있는 배우들의 연기와 수준 높은 연주가 빚어내는 하모니는 10월의 수운 최제우 선생 생가를 단풍보다 더 아름답게 물들일 것입니다.



‘2015 경주동학문화축제’에 올린 <만고풍상 겪은 손>

천도교와 경주시가 함께 만든 수운 대신사 일대기 창작 뮤지컬

경주 동학 문화제

- 〈사랑꽃〉
 - 〈주유팔로〉
 - 〈나는 어디에〉
 - 〈없다〉
 - 〈주운〉
 - 〈사월이라 초요일에〉
 - 〈구미용담 좋은 풍경〉
 - 〈검가〉
 - 〈수운 대신생을 석방하라〉
 - 〈있다〉
 - 〈용담수류 사해원〉
 - 〈이 모두 허무맹랑한 소리〉
 - 〈나라에는 법이 있고〉
 - 〈주문은〉
 - 〈고비원주〉
 - 〈우음〉
- 총 16곡의 창작곡

동학창도주 수운 최제우 대신사와 함께하는 **시간여행**

만고풍상 겪은 손

경주의 자람 동학 창도주 수운 최제우 대신사! 그의 생가를 배경으로 뛰어난 연기를 펼치는 21명의 뮤지컬 배우, 13명의 춤꾼과 연주자, 그리고 다수의 배우가 출연해 수운 대신사의 생애를 재현하는 총체극 형태의 뮤지컬 드라마! 동학 탄생지 경주를 무대로 동학의 창도 배경과 시대적 필연성을 공감하고 나누는 판타스틱 시간여행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총감독 권호성 백상예술대상 **음악** 양승환 ARKO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음악감독 이술아. 13명의 **세로토닌예술단**과 **타악 고석진과 라이브밴드 4인조**

2019년 10월 19일(토) 오후 2시
수운 최제우 대신사 생가

문의 및 예약 : 동학민족통일회
02-738-6623
010-4797-7461